Macro

미국 고용: 미국의 회복 탄력성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 미국 4 월 고용 +11.5 만 명으로 2 개월 연속 서프라이즈, 회복세 지속
- 일부 약한 고리에도 불구 올해 들어 고용 회복세 점차 뚜렷해져
-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의 복원력, 종전 시 하반기 고용 추가 개선 예상

미국 고용 2 개월 연속 서프라이즈, 점차 뚜렷해지는 개선세

미국 4 월 비농업 취업자는 +11.5 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6.5 만 명을 상회했다. 2 개월 연속으로 10 만 명대로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는 모습이다. 실업률은 4.3%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임금상승률은 +3.6%YoY 로 전월 +3.4%YoY 에서 반등했다.

3 월에 이어 4 월에도 미국 고용은 여러 산업에서 고른 회복세를 이어갔다. 금융업이나 AI 영향이 비교적 뚜렷한 정보 산업 정도를 제외하면 지난 몇 달간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비농업 고용은 월 평균 +7.6 만 명, 민간 부문은 +8.6 만 명 증가 중으로, 지난해 평균인 전체 +1.0 만, 민간 +2.5 만에서 회복세가 완연하다. 양적인 증가로 보았을 때 견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민자 감소나 시니어 계층의 이탈 등 노동 공급 감소를 감안하면 크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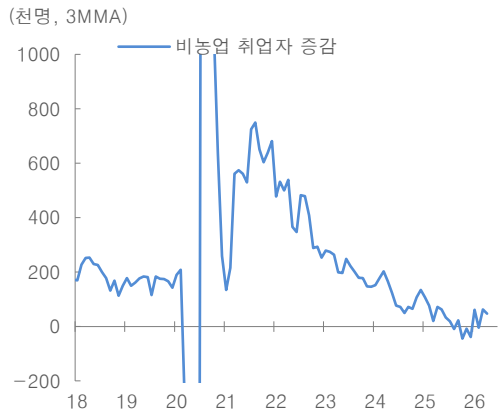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회복 탄력성, 종전 후 유가 안정되면 하반기 추가 개선

고용 회복세에도 아직 약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지난 2 개월 간 고용이 매우 양호했지만, 파트타임을 포함한 광의 실업률(U-6)은 2 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3 월 JOLTs 데이터에서도 채용과 구인이 모두 반등했으나 일간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회복되던 구인건수가 전쟁 발발 이후 다소 꺾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미국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이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는 2 년 여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Tech 와 정부 부문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감원 추세도 급감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2 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미국 경제는 큰 흔들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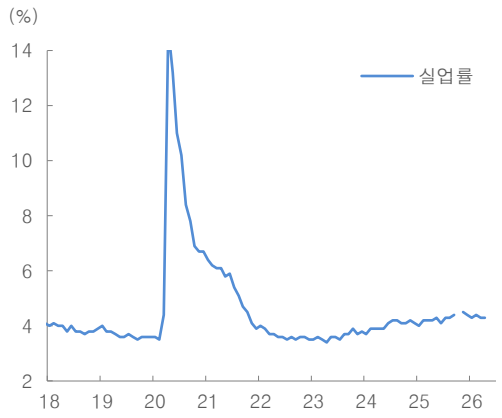
물류관리자 지수 등을 보면 현재 미국 경기에는 물류 차질이나 비용 인상을 우려한 선제적 조달 수요가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미국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유럽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모멘텀이 확실히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강점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감세 정책, 3 월 관세율 인하 및 관세 환급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 미국 고용은 결국 더 회복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최근 3 개월 평균 취업자 +4.8 만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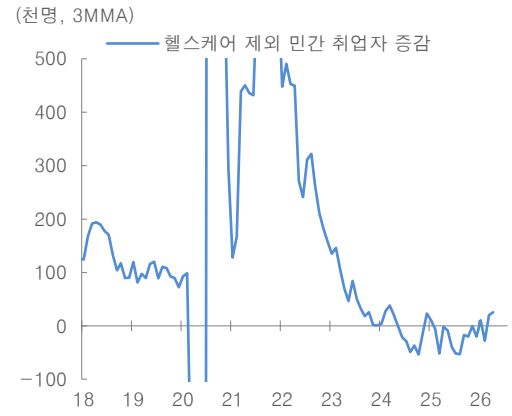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실업률 4.3%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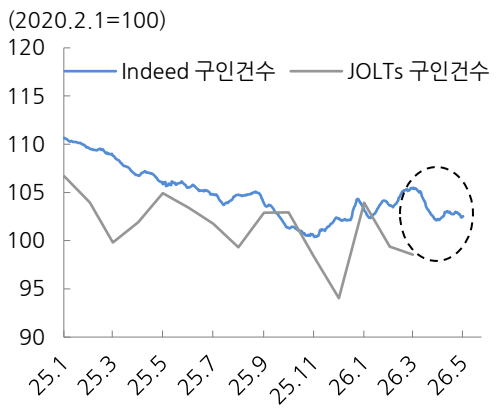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헬스케어 제외 민간은 지난 2 년 평균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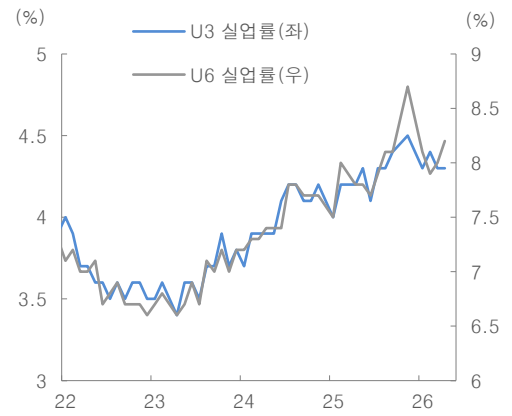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Indeed 구인건수는 전쟁 발발 이후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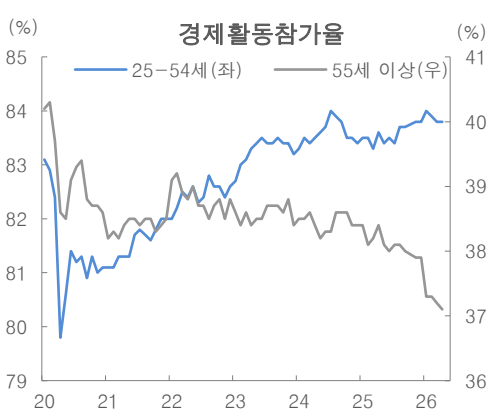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U-6 실업률은 2 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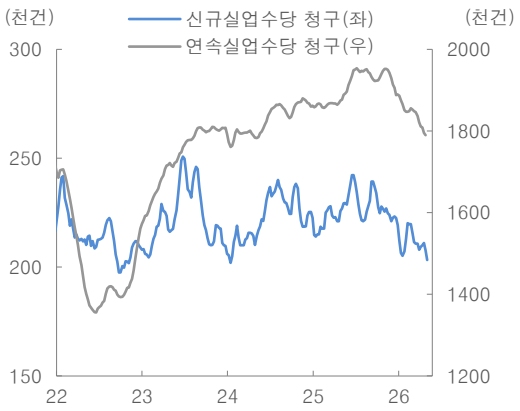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시니어층 노동 이탈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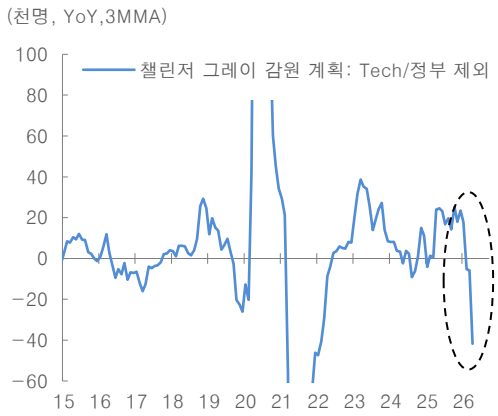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실업수당 청구는 2년 여 만의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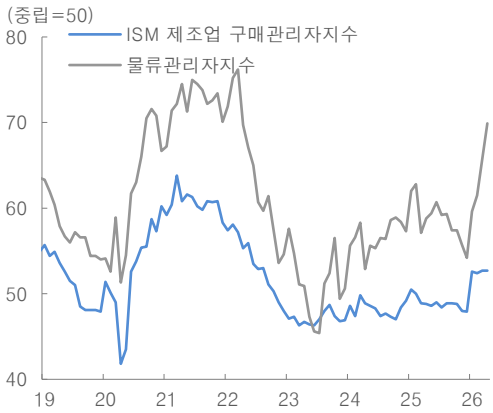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최근 Tech/정부 제외 감원 계획은 급감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3월 이후 물류업 활동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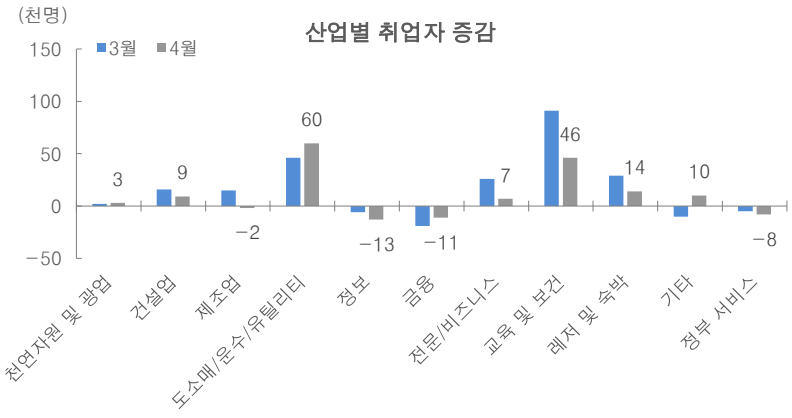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관세 위법 판결 이후 3월 실효 관세율 급락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4월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고르게 고용 증가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이정훈)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